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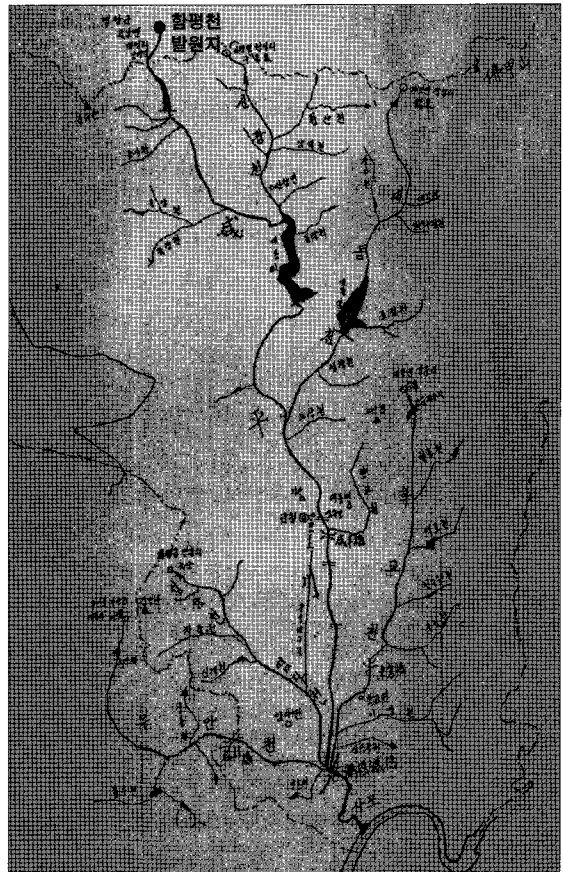
정 영 성 | 함평군청 창조디자인과
(ysung73@korea.kr)

함평천의 역사와 문화

1. 함평천의 발원

전라남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함평군은 북으로는 균유산, 불갑산을 경계로 하여 영광군, 장성군과 인접하고, 동으로는 광주광역시, 남으로는 나주시, 무안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는 황해바다인 함평만을 끼고 있다. 월야평야로부터 흐르는 고막원천(영산강 지류)의 서쪽에 위치한 함평천은 대동저수지를 시점으로 함평평야 및 학교평야를 지난 후 영산강으로 합류되고 있다. 함평천은 전남의 젓줄로 전남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영산강 유역에 속하며, 영산강 중상류에 위치해 크고 작은 지방하천과 합류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학교면 곡창리 사포에서 본류인 영산강과 합류한다. 선인들은 함평천을 사호, 또는 곡강이라 불렀다.

기록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 함평천 하류인 토교(사포 상류 80km 위치함)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한다. 함평천의 발원지는 영광군 군남면 대터리 상광암 마을 뒤 선바위굴의 해발 120미터 지점에 있는 일명 약수샘이다. 가로 126cm, 세로 105cm의 이 샘은 석간수가 풍풍 솟아나 인근에서도 깨끗한 샘으로 이름이 나있으며 현재는 마을 상수원으로 큰 역할



(그림 1) 함평천 수계도 및 발원지

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원한 함평천은 신광면 계천리 조산마을 앞에서 신광면 동정리 구봉에서 발원한 신광천과 합하여 대동저수지를 이루고, 남으로 흘러 대동면 덕산리 외덕앞들에서 해보면 광암리 용천에서 발원한 대동천과 합류하여 함평읍의 영수보와 대경보에 모이고, 다시 흘러 토교보를 지나 학교면 철교(호남선)에서 함평읍 만흥리 국산마을에서 발원한 암다천과 합하며, 대동면 강운리 거무내 마을에서 발원한 학교천과 합류한다. 계속 남쪽으로 흐르는 함평천은 또다시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도산계곡에서 발원한 무안천과 합류한 후 사포에서 본류인 영산강과 합류한다.

영광군 군남면 상광암 마을에서 발원, 사포에서 영산강과 합류하는 함평천 본류의 총길이는 32km이며, 5km 이상의 지류의 하천연장 57.66km를 합한 연장은 89.66km이다. 무안지역을 제외한 유역의 평야는 29.25km²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쌀 생산지이기도 하다.

함평지역은 함평천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생활터전이 되어 왔으며 선조들이 남겨놓은 귀중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경관을 우리는 가능한 원형으로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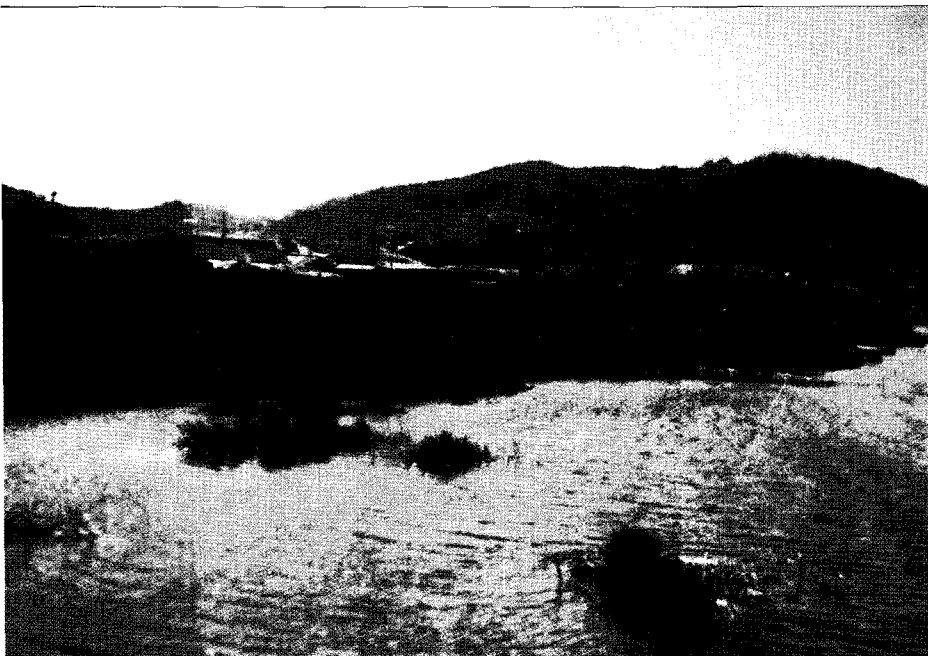
2. 함평천의 명칭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의 산천조에 의하면 현의 동쪽 2리에 대천이 있다고 하였고, 옛 함평군 현지에는 현의 동쪽 2리에 영수천이 있다고 하였으며, 여지승람 무안현 열제포가 현의 동쪽 5리에 있고, 근원은 함평의 수산에서 나오며 남쪽으로 흘러 대경보에서 합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의 토교는 돌로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함평천 하류에 속하는 토교에는 50년 전까지만 해도 배가 드나들었다. 함평읍을 흐르는 내(川)는 대천이라 하였으나 후에 하천이름이 영수천으로 바뀌었으며, 영수천이란 중국의 기산 영수(箕山 潁水)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함평천의 중류지점인 대동면 운교리 앞뜰은 “버림바대뜰”이라 불리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대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함평천이 옛날에는 꽤나 넓은 강이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함평읍 진양리 하나루 마을이라는 지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때는 토교천, 영수천, 버림바대뜰을 통틀어 영수천이라 부르다가 근래에 이르러 함평천이라 부름과 동시에 국가하천이 된 것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영수(함평)천은 여름이면 아이들이 미

역 감고 물고기 잡던 곳이고 아이들의 빨래터였었다. 1960년대, 지금의 영수보 지점은 수심도 깊고 미역 감던 이들도 많았기에 따른 의사자도 많았는데,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전마선(傳馬船, 거룻배)에 쫓붙을 띄워 보내는 의식을 가졌으며 70년대 후반까지 동네 수영장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토사가 쌓여 그 흔적만 남아 있다.



〈그림 2〉 함평천의 모습(1980년대)



〈그림 3〉 함평천의 들녘 모습(1980년대)



〈그림 4〉 함평천 영수보

3. 기산과 영수

함평읍의 주산인 뒷산을 기산(149.1m), 기산의 동쪽을 휘 감고 흐르는 내를 영수천이라 부르며, 함평읍이라는 읍명 보다는 더 알려진 이름이 영수천(함평천)이다. 함평읍의 주산을 기산이라 부르는 것은 산의 형국이 키(사투리 치)와 같아 기산이라 했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실은 중국의 하남성 동봉현 남동쪽에 있는 기산에서 따온 이름이고 영수 또한 이곳

에서 따온 이름이다.

흔히들 함평을 예찬할 때 기산과 영수로 이름 높은 곳이라 하는데 중국의 기산 영수는 “기산지지”, “영수지지”에 유래하고 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청렴하게 기산에서 살던 허유가 요임금으로부터 자기에게 양위를 할까 한다는 말을 듣고, 듣지 못 할 소리를 들었다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고 있던 차, 역시 기산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소부가 소에게 물을 먹이러 오다가 허유에게 귀를 씻고 있는 연유를 듣고, 어찌 듣

지 않아야 할 말을 듣고 귀를 씻은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있느냐며 상류로 올라갔다는 소사가 서린 천이다.

그러면 함평의 기산과 영수는 언제부터 부른 이름인가? 1445년, 단종의 퇴위에 항거하여 관직을 버리고 신말주(신숙주의 아우)와 함께 향리(현 구기산)로 내려와 허유와 소부의 지조를 추앙하며 티 없이 살기를 맹세한 이안(李岸 1414~?)이 이곳 함평천을 배경으로 정자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영파정(潁波亭)이란 액호를 붙인 뒤 기산과 영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안이 낙향하여 살기 전의 기록들을 보면 영수천은 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산이란 이름은 찾을 수 없다.

물이 맑아 노니는 새우의 수염까지 셀 수 있다던 지금의 영수천의 이름은 예전에는 대전이라 했다. 그래서 동국여지승람에도 지금의 영수천이 대전으로 소개되고 있다.

4. 함평천의 문화

이 지역 사람들은 함평천의 물줄기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다양한 문화를 일구어냈다. 함평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약 100만㎡의 들녘에서 매년 4월말 열리는 기산제는 옛부터 한해의 풍년농사를 감사하고 지역화합을 위하여 지내 온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다. 함평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화합 등을 위해 거행되는 영수제, 사직제와 더불어 함평의 3대 제향중 하나이다. 기산제는 한해의 풍년농사를 감사하고 지역화합을 위하여 거행되어 왔으나,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말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맥이 끊긴 후, 1979년부터 약식 불교산제로 다시 거행되던 '기산제'를 1984년 10월 4일 군민의 날 행사시 기산제를 재현한



(그림 5) 기산제

후, 1994년부터 시·군 1 민속제 전승이라는 전남도의 방침에 의해 전통민속제로 지정하

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무속제향과 유교제향을 나누어 전승해 오고 있으며 이중 기산제는 무속제향을 중심으로 시연되고 있다.

5. 맺음말

19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함평천의 고수부지는 직선화되었다. 당시만 해도 하천의 기능이 치수와 이수만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사업이었다. 새마을사업으로 고수부지가 말끔히 정리되어 호안공이 설치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를 만들었으며 하상을 정리하였다. 그 시절 함평천내에 거주하던 농가가 10여 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주변은 논과 밭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고 이곳에서 소출을 보았다. 그 후 90년대 초, 일부 이기는 하지만 함평천은 자연하천 정화사업의 실시로 또 한번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함평천은 많은 노력의 결과로 비교적 옛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고수부지에는 역새가 장관을 이루고, 냇가에는 수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함평나비대축제는 함평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유채꽃과 들녘의 유희농지에 자운영 꽃을 배경으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과 자연을 소개하는 생태학습 환경축제로 2008년도에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화합과 함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축제의 큰 축으로서 함평천이 더욱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함향(咸鄕) 창간호(1989), (사)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 함평군사(1999), 함평군사편찬위원회